탄환이론과 성막의 뇌관

(출27:1~21)

1.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2.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3.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4.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5.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6.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7.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메게 할지며
8.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번제단의 제작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시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쳐서 성막의 뜰을 만들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성소 안에 등대의 등불 관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시가 나오는데, 오늘 27장 말씀 중심으로 <탄환이론과 성막의 뇌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탄환이론과 성막의 뇌관'

1930년대에 대공황이 미국을 뒤덮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1938년 10월 30일 8시에 미국 CBS 방송국 라디오에서 "화성으로부터의 침공"이라는 공상과학 라디오 극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signal과 함께 간단한 뉴스와 일기예보(진짜 뉴스와 일기예보가 아님)가 나오다가 8시 12분경에 갑자기 거대한 운석이 뉴저지 주의 한 공장에 떨어졌다는 긴급뉴스가 전해지고 이어서 그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인터뷰와 그 운석에서부터 화성인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45분에 걸쳐 CBS는 뉴스보도 형식으로 화성인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고, 미군에는 동원령이 내려졌고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성인과 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내무장관의 담화문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화성인들이 점점 더 뉴욕으로 접근해오고 있으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급박하게 전해지는 가운데, 아나운서의 비참한 침묵이 중간 중간 이어지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연출되며 극

은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것은 공상과학극이고 실제 상황이 아니었음을 반복해서 확인해주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뉴스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 공상과학 라디오극을 실제 상황으로 인식해서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물질적 피해가 생기고 그 결과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CBS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미국의 연방커뮤니케이션 위원회는 방송되는 극에서 다시는 보도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공황이 오면서 사람들이 라디오에 매달려 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학자들이 “탄환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탄환이론의 가장 강력한 예가 이 CBS의 공상과학극으로, 대중매체의 효과는 마치 총을 맞을 때처럼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총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피가 나고 사람이 쓰러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라디오의 힘이 그와 같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탄환이론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고 성소에는 진설병을 놓는 떡 상과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의미’라는 것은 성막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가 선민 각 개인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미들이 각 개인에게 활성화되려면 성막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내보낼 콘텐츠만 만들어놔도 의미가 없고 그 콘텐츠를 방송을 통해서 총을 쏘듯이 내보내야 되는 것처럼, 성막의 모든 내용들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총을 쏘듯이 쏴버릴 수 있는 뇌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뇌관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웁니다. 소나 염소나 양을 번제물로 태우는 불이 마치 뇌관에서 화약이 터지며 총알이 발사되는 것과 같습니다. 탄피 안에 화약을 집어넣고 그 앞쪽으로 총알을 집어넣습니다. 화약이 들어있는 부분이 뇌관인데 송곳 모양의 공이로 충격을 주면 화약에 불이 붙으면서 터지고 총알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들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번제단에서 불이 붙어야 뇌관역할을 하면서 선민 개인들에게 총으로 맞는 것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의미의 활성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번제단에서 번제가 드려질 때에 성막의 의미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속죄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등대와 진설병이 있는 모든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미들이 내게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불이 붙어야만 합니다.

이 번제단의 크기가 정방형으로 2m22정도, 높이가 1m35정도로 킹사이즈 침대보다 넓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석쇠위에 올리고 불을 지피게 되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들이 각이 떠지고 불이 붙을 때 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침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올라가서 눕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내가 불에 타 죽는 뇌관이 될 때에 성막의 구성요소들이 갖는 의미가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번제단을 완성한 사건으로 그것을 통해 성막의 구성요소들이 담고 있었던 모든 의미가 다 내 것이 되는 것으로 진설병은 나의 배부름이 되고, 등대는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 매일의 삶이 오류가 없고 과오가 없는 밝음 안에서 살게 되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진행되고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증거 하는 증거판이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언어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죽는 것이 됩니다.

오늘 번제단의 뇌관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뭐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로 돌아가도 내 몸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는 것을 보고 바로 “내가 죽는 것이라”고 고백할 때의 죽음은 바로 주체성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주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성을 주셨는데 그 주체성으로 주인노릇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체성으로 노예 노릇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주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다 주인으로 주체성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활용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능력은 있지만 언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우리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언어를 훔쳤습니다.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언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언어를 훔쳤다는 증거를 예로 들면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돈이 없지만 이 말을 하지 말아 보세요.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은 언어로 마음속에서조차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라는 언어와 ‘없어서’라는 언어와 ‘큰일 났다’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보세요. 이상하게도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이라는 감정이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지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TV에 나오는 송 혜교 씨를 보면서 “참 예쁘다”라고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언어를 쓰지 말아 봅니다. ‘참’이라는 언어도 쓰지 않고 ‘예쁘다’라는 언어도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

주 못 생긴 개그우먼이 나왔습니다. 못 생겼다고 말해도 실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이 나왔을 때에도 “참 못 생겼다”라는 언어를 떠올리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예쁜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쁘면 끌리고 못 생기면 거부감이 생기는 법인데 끌림도 거부감도 없어져버리고 마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언어를 훔치면서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번제단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언어는 이성이고 합리성이고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도 모든 것이 다 언어를 훔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없이 살아가야 하느냐? 아닙니다. 지정의(知情意) 속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언어를 훔쳐서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왜 생깁니까? “돈이 좋다”는 판단을 합니다. ‘돈이 좋다’는 언어를 훔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돈이 좋기 때문에 없으면 걱정이 되고 많이 벌면 기뻐집니다. 희로애락은 언어를 훔친 것으로부터 생기는데, 내가 언어를 훔침으로써 생긴 지정의의 모든 표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언어로부터 온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언어를 번제단에서 죽여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지만, 사실 어색할 이유가 없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이 말씀입니다.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성경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66권으로 깨알같이 쓰여 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모든 이야기가 뜻하는 것은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 말씀과 나의 말이 따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남도 없고, 만남이 없기에 성막의 내용들이 총알 맞은 것처럼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어가 무서운 것은 판단도 언어가 있어야 가능하고, 마음속의 생각도 언어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말도 언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은 손짓으로라도 마음속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또한 언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성의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의 차원에서도 언어가 나타나고 언어가 감성으로 표현되고 언어가 의지로 표현되는데 결심과 결단이라는 의지로 표현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언어가 없으면 결심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있음 이 자체가 전부 도둑질한 언어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판단인데 그 판단이 돈이 좋다고 해서 돈을 마음에 들여놓고, 자식이 최고라며 자식을 마음에 들여놓고, 권력이 최고라며 권력을 집어넣고 나면 권력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웃게 되고, 권력에 향한 의지가 발동 되어서 꺾이면 좌절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언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언어 하나를 훔친 것으로 인해서 지정의가 나타나는 모든 순간에 도둑질한 언어의 침투작용이 일어나는데 모두가 다 죄에 찌들어 있

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 올라가는 짐승은 살을 다 각을 떠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을 내서 올려놓는데 우리에게 죄가 침투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 채찍으로 맞아 살점이 다 떨어지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돌아가시게 된 이유는 우리가 언어를 훔친 결과로 우리의 인격 모든 구석구석까지 죄가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모든 내용들이 은혜가 됩니다. 성막의 구성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만 우리에게 활성화시켜서, 총 맞은 것처럼 즉각적인 영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은 복지의 삶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언어를 훔쳐서 살고 있는 나의 인격이 번제단을 침대로 생각해서 드러눕고 불이 붙어 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재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피닉스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성막 밖의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양과 소는 우리를 언어 도둑질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이고 이것이 뇌관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식을 볼 때에 이전에는 “이 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언어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인격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언어가 표현되지 않고 언어가 죽어버리면 인격도 죽어버리는 것이고 인격은 항상 언어를 통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 그 때부터 하나님의 언어로 내 인격이 살아나게 됩니다. 갈2: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9-19절에서 “울타리를 치라”고 하십니다.
이 ‘울타리’가 뜻하는 것은 선민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선민은 번제단 위에 자기를 누이는 자들로 쉽게 말하면 훔친 언어의 속성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말을 하려는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고 곧바로 울타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선민이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깜짝 놀라는 자들입니다. 울타리가 쳐있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번제단이 주님의 십자가인 것을 알고, 내게서 내 말이 나오려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울타리로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생기는 것도 언어로 표현됩니다. “이게 뭐야, 저것도 사람이야”라고 하는 말도 십자가에서 싹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그 말에 붙어있는 내 인격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송혜교 씨가 ‘예쁘다’라는 말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고, 송 혜교 씨를 바라보면 “송 혜교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알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못 생긴 개

그우먼에 대해서 “참 못 생겼다”라는 내 언어를 죽이면 “사람들은 못 생겼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미스월드보다도 더 예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롬2: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들 얼굴을 뜯어 고치며 송 혜교 씨처럼 되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돈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돈이 없다’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말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인격까지 죽습니다. 뇌관이 되는 것이지요. 뇌관이 되면 십계명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이 아닌 다른 은혜로 나를 채우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등대의 삶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기 시작하는 진설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번제단이 침대인줄 알고 올라가서 누울 때 불이 붙어서 언어를 도둑질한 나의 인격이 죽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언어를 도둑질한 효과는 생각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지성과 의지 등 모든 방면에 미치면서 내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순간에 내 인격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서 하나님의 언어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갈등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불만이 생겨서 우리가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십자가 생활화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이미 “돈이 없어서 큰일 났구나.”라고 내 언어로 해놓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내가 풀가동 되고 있는데 그것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 그 때에는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내 언어가 튕겨져 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언어가 튕겨져 나가야 하고 내 언어와 연결된 내 인격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삼일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십자가의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약 먹듯이 계속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상번제의 이야기가 다다음장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매일 탄환을 쏴야 성막의 구성요소가 지니는 복음적 의미가 다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지 말아요. 마음속에서 언어가 떠오르지 않도록 내 언어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되고 쓸데없고 거짓된 감정과 의지에 좌우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결단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8: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두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감정이 있으시기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아버지가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게 되는데 우리는 언어를 도둑질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나는 슬퍼하고, 아버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나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

뻐할 때에 아버지가 슬퍼하십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데 아버지는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나서 싫어하지만, 아버지는 그 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매번 이렇게 아버지와 다르니 어떻게 행복이 주어지고 안정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겠습니까?

번제단은 성막의 모든 복음적 내용들이 탄환처럼 즉각적으로 내게 의미가 활성화되게 해주는 뇌관이고, 그 번제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막의 모든 내용들이 탄환에 맞을 때처럼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오늘도 영원한 번제단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번제물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는 뇌관이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